

## A부터 Z까지 지도를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꼬마철학자가 된답니다

### 오르배 섬 사람들이 만든 지도책 (전3권)

프랑수와 플라스 글·그림 | 공나리 옮김 | 솔출판사 |  
각권 약 90쪽 내외 |  
1권 값 11,000원, 2·3권 값 12,000원



프랑스의 그림책 작가 프랑수와 플라스의 작품들은 더없이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자연'이라는 경이로운 세계의 이야기들을 시적 주술적 마법적인 문체로 형상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섬세한 필치의 동양적인 그림을 통해 자연의 원시성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오르배 섬 사람들이 만든 그림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책에선 자연과 인간 문화적 교감을 한데 아우르며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 스물여섯 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라스가 만든 가상의 공간 '오르배 섬'의 지리학자들은 지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 수 있다고 믿었다 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길과 만나고 그 길에서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는 것이 소중한다는 의미겠지요. 여하튼 지리학자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자연의 모든 현상을 지도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일을 다 끝내지 못한 학자들도 있죠. 구름의 모양과 색깔, 구름의 이동방법 등 구름관련 지도를 만들다 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자도 있습니다. 플라스는 이런 지리학자들의 시도를 여섯 권의 책 안에 담았고 흥미롭게도 우리가 알파벳 순서로 스물여섯 곳을 찾아가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오르배 섬 학자들의 탐험담은 무척 다채롭습니다. 우연히 폭풍우에 떠밀려 연꽃 나라에 가게 된 제논선장 이야기부터 인디고 섬의 아련한 쪽빛을 찾게 된 장사꾼 코르넬리우스의 이야기까지 매우 다양한 탐험담이 소개돼 있습니다. 플라스는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인 산부터 멀고 먼 북쪽 땅 끝에 있는 눈과 얼음의 나라까지 다양한 장소들을 설정해 놓고 각 나라의 다른 풍속과 종교, 옷차림, 동식물 등 풍부한 민속지(民俗誌)를 삽입해 상상력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여전사인 아마조네스의 나라', '수많은 연못과 강, 운하로 이루어진 연꽃나라' 등 듣기만 해도 신비스러운 세계에 도착한 우리들은 그곳에서 귀신에 홀린 듯 신화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각 인물과 그들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를 해석해야 하는 과제까지 기다리고 있죠. 이 과정에서 플라스는 서정적인 그림뿐 아니라 유려한 문체로 욕망과 반성, 좌절 등 독자들의 감정들을 최대한 이끌어냅니다. 그런 까닭에 A부터 Z까지 다양한 배경과 사람들, 사건들을 만나고 온 우리들은 주술과 마법의 세계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삶의 참미, 이질적인 세계의 풍속과 문화를 이해하는 법 등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인디고 섬(I)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나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야 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이 두 다리로 안 다녀 본 곳이 없을 정도지"라는 말을 남깁니다. 물론 이 책을 펼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린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오르배 섬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가며 펼쳐진 세계를 열심히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주술과 마법에 걸린 듯 정신 없겠지만 그곳에서 나올 땐 자연과 인간 그리고 세상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지닌 꼬마철학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현재 3권까지 출간된 상태이고 나머지 3권이 곧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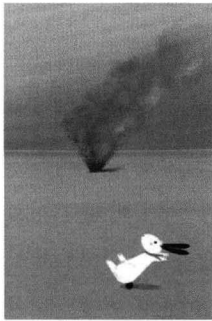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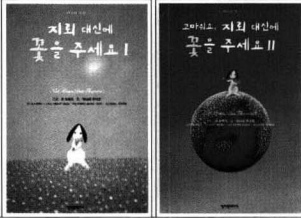
김청연 기자



## 대인지뢰 없애는 씨니를 따라 평화노래 불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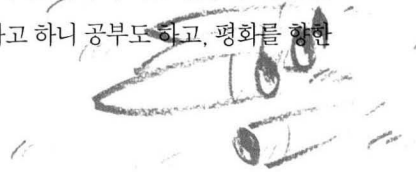
**지뢰 대신에 꽃을 주세요 I**  
**고마워요, 지뢰 대신에 꽃을 주세요 II**

야나세 후사코 글 | 요쇼메이 그림 | 송승희·선곡유화 옮김 |  
청어람미디어 | 각권 약 50쪽 내외 | 각권 값 9,500원



전쟁이 남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상처이거나 휴전을 한 상태에서도 남아 있는 대인지뢰(사람을 죽이게 하는 지뢰)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제2의 전쟁무기가 돼 버리지요. 이미 오래전에 휴전을 맞이한 우리나라에도 약 100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다고 하니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뿐인가요. 대인지뢰가 묻혀 있는 나라는 약 70개 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만4,000명이 지뢰 때문에 손발을 잃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뢰 대신에 꽃을 주세요 I》와 《고마워요, 지뢰 대신에 꽃을 주세요 II》에 등장하는 씨니는 지뢰 피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지뢰 대신 꽃을 심고 다친 사람들을 돕는 착한 토끼입니다. 두 권의 책은 이같은 씨니의 활동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씨니의 지뢰 없애기 활동에 동참하는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100년 후 지뢰 없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까지 꿈꾸고 있지요. 또한 말미에 대인지뢰가 무엇이고, 대인지뢰를 금지하지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궁금해 할 다양한 전쟁관련 정보까지 담고 있습니다. 씨니 말처럼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책으로 알게 된 것, 공부한 것을 친구와 가족에게 알려주며 작은 평화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수익금 일부가 '난민을 돕는 모임' 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기부될 것이라고 하니 공부도 하고, 평화를 향한 실천도 해보기 바랍니다.



## 어린이들도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똥싼 할머니**



이옥수 글 | 김병호 그림 | 시공주니어 | 160쪽 | 값 6,500원

똥을 싸놓고, 물을 불이라 소리치는 할머니의 치매사건이 터진 이후 새샘이네 식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도 화난 사람들처럼 밥만 먹고 일어서고, 할머니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으니 집안 가득 냉기가 돕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의 치매를 지켜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사실적으로 풀어쓰고 있습니다. 1인칭 화자인 새샘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예뻐해 주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에 할머니의 이상한 변화가 낯설고 싫기만 합니다. 물론 할머니의 행동에 당황하는 건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지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긴 하지만 미묘한 감정들이 얽히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치면서 결국 가족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아빠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힘들어하고, 엄마는 직장을 다니면서 시어머니까지 보살피야 한다는 현실을 앞에 두고 시어머니를 향한 애증을 키워가죠. 속이 상한 새샘이는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혼잣말을 내뱉기까지 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만 할머니를 잃어버린 후 또 다른 대안을 찾아나갑니다.

치매노인을 보살피는 정해진 대안은 물론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가족들의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를 사실적으로 소개하면서 어린이들도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져보기를 권하는 책입니다. 노인이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특히 더 권하고 싶습니다. ☞

김청연 기자

